

충남 탄소중립경제 선도...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

언더투연합 가입, 탈석탄금고 운영
국내외 탄소중립 확산 분위기 '주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9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예정

경제·산업 구조 탄소 기반 선도적 전환

충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100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한반도 기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폭우와 폭염, 가뭄과 한파 등 극심해진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탄소배출이 지목된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어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도는 탈석탄동맹, 언더투연합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멤버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다. 기후비상상황 선포, 탈석탄 금고 선언,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는 11~13일 환경부, 보령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8월 11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충남도와 보령시, 환경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은 ‘지속가능발전 대전환 선언 in(인) 보령’을 선언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와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열었다.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오는 9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할 것을 밝혔다.

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산업, 일자리 등 기존의 ‘탄소 기반 경제’를 ‘탄소중립 수소경제’의 틀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탈석탄의 대안인 수소경제 육성에도 집중한다.

서해안에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와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다.

한편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8월 11일 낮 12시 기준 천안, 공주, 보령, 계룡, 논산, 부여, 서천, 청양 8개 시군은 호우경보, 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비상2단계를 유지해 비상근무 중이다.

평균 강수량은 190.5mm, 최고 강수량은 보령 252.7mm, 최저 강수량은 금산 70.5mm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강수량은 735.4mm이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에너지과 041-635-3456

모바일 충청남도신문 운영

도정신문은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온라인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소식과 문화·생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도정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정신문’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예우와 지원에 최선”

도, 이일남 생존 애국지사 위문

충남도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5일 금산 출신 애국지사로 대전에 거주 중인 이일남(97) 옹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25년 금산에서 태어나 1942년 전주 사범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해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펼쳤다.

1945년에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발각돼 투옥됐다 광복 이후 출소했다.

이 애국지사는 1986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도와 시군 간부 공무원들은 광복절 전후 도



애국지사 이일남 씨.

내 독립유공자 415명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2

충남 사회조사 실시...도민 정책 수립에 활용

9월 4일까지 방문·인터넷 조사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9월 4일까지 도내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2 충남 사회조사’를 한다.

조사 항목은 ▲주관적 웰빙 ▲가구와 가족 ▲환경 ▲건강 ▲여가와 문화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안전 ▲교육 ▲사회통합 등 51개 도 공통 항목과 시군별 5~13개 특성 항목으로 구성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결혼 및 가족 계획,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경제활동 실태, 공동체 의식,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 거주 지역의 환경·주거·교통·안전·복지 평가 등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2022 충남 사회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가구 선정 통지서를 송부받은 가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정책관 041-635-3201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충청남도

2023.1.1 시행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웃 특별한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답례품 생산·제조

주민복지 사업

주인 복지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환황해 해양환경 협력체 만들자”…동아시아 지방정부에 제안

도, 제8회 환황해 포럼 개최

한·중·일 등 전문가 참석 논의

해양, 농업, 관광 방안 모색

해양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도는 8월 4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제8회 환황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환황해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카자흐스탄, 영국 등 6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도는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복원 실천 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력체를 토대로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데이터와 정보, 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해양 분야 특별세션과 농업(1부 공생)·평화안보(2부 평화)·문화관광(3부 반영) 등 3개 분야로 나눈 본세션을 진행했다.

특별세션은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및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가 발표했다.

심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은 세계 해양 어디에나 존재하며, 아시아 인근 해역은 그야말로 ‘핫스팟’으로,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변화 속 식량위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 본세션 1부는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갖고, 탕셴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2부는 ‘환황해의 미래를 위한 우주협력’을 주제로,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동북아에서의 우주경쟁과 협력’을 발표하고, 브랜단하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중일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사업 교류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3부는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한중일 역내 관광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하라 미키코 구마모토현 관광교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환황해포럼’이 열리고 있다.

최 실장은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이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역내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방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안전 제고, 교류협력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041-635-3666

금산 시작으로 15개 시군 방문

도민에게 도정비전, 방향 공유

도민의견 수렴 정책 수립에 반영

충남도는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에게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을 알리고, 시군과의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을 모색한다.

16일 금산군을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23일 간 15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도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첫 방문지인 금산군에 이어 17일 태안군, 19일 논산·계룡시, 29일 천안시, 30일 아산·서산시, 31일 부여·청양군을

차례로 방문한다.

9월에는 1일 당진·공주시, 2일 서천군·보령시, 6일 예산군, 7일 홍성군을 끝으로 시군 방문을 마무리 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첫 시군 방문은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뒀다”며 “도정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유관순 열사 애국·애족정신 계승

유관순 햇불모임 워크숍 개최

충남도는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10~11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유관순 햇불모임’을 개최했다.

매년 8월 열리는 유관순 햇불모임은 ‘유관순햇불상’ 수상자 선발을 위

한 공동 연수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임이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대면 모임인 만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유관순 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강의 및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충

절의 고장인 충남을 널리 홍보하고, 지속적인 도정의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관순햇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구현한 학생, 학교·사회에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구현한 학생 등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숲해설가가 들려주는 무궁화 이야기

숲해설 듣고 부채 만들기 체험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8~9월 무궁화 개화 시기에 맞춰 금강수목원에서 숲해설 프로그램 ‘숲해설가가 들려주는 무궁화 이야기’를 운영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금강수목원은 무궁화원, 장미원 등 27개의

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궁화원에는 흥단심게 ‘서호향’, 백단심게 ‘순정’ 등 다양한 무궁화를 심어 관리하고 있다.

금강수목원 내 위치한 충청남도산림박물관에는 50여 종의 무궁화꽃 한지 공예품을 전시 중이다.

숲해설은 무료로 진행하며, 한지를

이용한 무궁화 부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청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숲해설 예약하기’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이 핀다.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가졌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36

휴가철 관광지 불법 숙박업소 점검

무신고 업소 1년 이하 징역

충남도는 시군과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관광지 내 불법 숙박업소 특별 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정신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

한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식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식업소 등이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1

가 지원된다.

신청은 충남사회혁신센터 누리집(www.cnic.kr) 또는 이메일(hello@cnic.kr), 전화문의를 통해 하면 된다.

/충남사회혁신센터041-557-5045

상하이 의거 전 청도 머물며 세탁소에서 일하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8) 압록강을 건너 청도(靑島)로



청도에서의 윤의사.

열차는 밤새 달렸다.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밖이 흰했다. 선천 역에 도착할 즈음 월진회 활동을 함께 한 황종진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편지를 다 쓰기 전에 기차 안에서 차표 검사가 있었다. 형사는 그의 행색을 살피더니 몸수색을 했다. 호주머니에서 방금 쓴 편지가 나왔다. 형사는 편지를 뚫어지게 보더니 ‘넓고 넓은 만주 벌판에서 뛰어 놀고 싶다 구!’ 하면서 윤봉길의 따귀를 때렸다. 윤봉길은 선천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여러 날 고초를 겪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여관에서 알게 된 한일진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청도(靑島)에 들어갔다. 한일진은 청도에서 미국행 배에 올랐다. 그의 배 샷을 대납해주느라 빈털터리가 된 윤봉길은 청도 시내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다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일자리를 부탁하였다. 주인은 윤봉길의 처지를 측은해 하고 세탁소의 점원 자리를 소개해주었다. 주인은 나카하라 켄지로(中原兼太郎)라고 하는 일본인이었다. 고향에서 서당 훈장을 하고 야학도 운영했던 서생(書生) 윤봉길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고 상해로 갈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세탁소의 직원이 되었다.

1930년 10월 어느 날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께 답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집을 나선 것이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굳센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린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비록 아들이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로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편지에 담았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면서 부모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남편의 편지를 받은 배씨 부인은 반갑기도 하면서 자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들에게 준 편지를 빌어 자신에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식 사랑과 교육에 성심을 다하였다.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장롱 속에서 편지를 꺼내 읽어주곤 했다.

윤봉길은 세탁소 일을 하면서 신임을 받아 회계원 일을 했다. 어느덧 세탁소 생활도 1년이 되었고 상해로 갈 노자도 충분하였다. 주인에게 세탁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성실했던 윤봉길이 떠난다고 하자 주인은 월급을 더 올려준다며 만류하였다. 그러나 윤봉길은 단호히 거절하고 상해로 출발하였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일상 속 불편함 도민이 해결한다

22일까지 ‘보통의 혁신가’ 모집

충남도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일상 속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보통의

혁신가’ 2기를 모집한다.

‘보통의 혁신가’ 2기는 충남도에 거주하거나 도내에 직장, 학교 등 연고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 활동비(40만 원)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군문화엑스포 10월 7일 개막...준비 '박차'

보고회 열고 추진상황 점검
세계평화관 등 7개 전시관
서바이벌, 사격 등 체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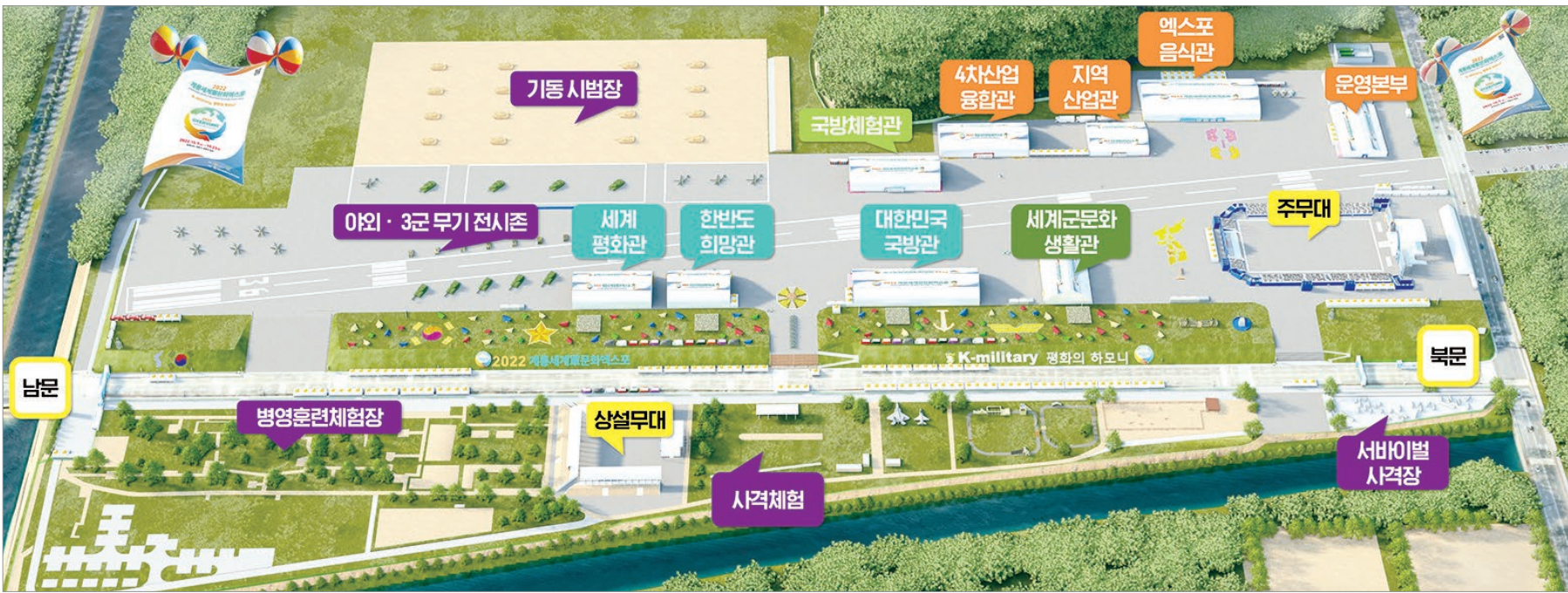
충남도가 개막 64일 앞으로 다가온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본격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 실·국 및 기관 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8월 4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군문화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계 군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행사인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보고회는 세부 실행계획 보고, 준비상황 및 추진상황 보고, 토론, 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직위의 세부 실행계획과 준비상황, 국방부 지원단과 육군 기획단의 준비상황을 공유했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며, 도와 계룡시의 추진상황을 살폈다.

현재 도는 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 5개 분야 69건에 약 585억 원을 투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람객에게 다양한 군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평화관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등 7개 전시관을 조성하고 장비 탑승, 서바이벌, 사격훈련 등 이색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해외군악대 시연으로 미국, 영국, 멕시코 등 9개국의 군악대가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추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엑스포 개최를 위한 상황별 대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위, 지원단, 계룡시 등 관계 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공유하고

유기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입장권은 전국 농협은행과 계룡시 관내 농축협 지점 4개소, 국민은행 충청지역 67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에서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관광진흥과 041-635-3886

軍문화엑스포 안전하고 깨끗하게

화장실·청소 등 관람 편의 제공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는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쾌적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및 청소 환경 관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조직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역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화장실 실내외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

관람객 증가에 대비해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등)을 수시 배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6동을 설치한다.

행사장은 낮부터 행사 직후까지 수시로 정비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을 상시 운행한다.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승인

기재부, 필요성·적정성 인정

충남도는 7월 말 열린 기획재정부 정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타당성' 안건이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인정받아 원안 가결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발판을 마련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대회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해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의향서를 제출,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동유치위는 충청권이 최종 개최 도시로 선정되면 지역 스포츠 기반과 대형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동북아 5개국 청소년, 환경선언문 발표

온라인으로 환경 활동 사례 공유

충남도는 8월 8~9일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회(NEAR) 5개 회원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동북아 청소년 환경 활동 리더 육성사업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동북아 청소년 환경 활동 리더 육성사업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동북아 지역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회 환경분과위원회 가입 자치단체별로 1년 단위 순회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충남)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 9개 지자체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8일에는 각국의 문화와 환경 활동 사례를 공유했으며, 둘째 날에는 '재활용(리사이클) 작품 만들기' 환경 체험 활동을 함께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의 바람과 의지를 담은 '2022 환경선언문'을 발표했다.

올해 도가 개최도시로 지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방식을 활용해 추진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2

2022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방문면접조사 2022년 8월 12일 ~ 9월 4일 인터넷 조사 2022년 8월 12일 ~ 8월 21일

조사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사대상 15,000 표본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내용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 특성 등 12개 영역

실시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 제213009호

※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관 충청남도

조사 전주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금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설계/분석 GLOBAL RESEARCH

노동자 심리상담 지역거점 운영

내담자 희망 반영 상담기관 배정
충남노동권익센터 누리집서 신청

충남도 내 지역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거점이 마련됐다.
도는 8월 10일 충남노동권익센터와
도내 심리상담기관 3곳이 ‘심리 치유

모두 나;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은 천안의 나와너심리상담
센터 등 3곳이다.
충남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총 12회 상담을 지원하며, 내담자의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을 배
정에 진행할 계획이다.
내담자의 근무시간과 지역 이동을

고려해 지역거점으로 내방이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
담도 추진한다.
모두 나;선은 도내 주소지를 둔 사
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충남노
동권익센터 누리집(www.cnnodong.
net) 또는 전화(070-8801-3586)로 접
수하면 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도,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교류 확대

인적·기술적 교류 재개 논의

충남도와 베트남 롱안성이 17년간 이
어온 우호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다
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8월 4일 보령머드테마파크 내 제8
회 환황해포럼 현장에서 양 지방정
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
눴다.
도와 롱안성은 그동안 지역 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 기술, 금산엑스포·보
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기

술 등을 교류해 왔다.
도는 봉사활동, 케이팝(K-POP)
등 청소년 문화 교류 재개,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재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연계 방문 등을 제안
했다.
2005년 도와 우호 협력 관계를 수
립한 베트남 롱안성은 호치민 남서
쪽에 있는 평야 지대로, 면적은 4495
㎢이고 인구는 2019년 기준 168만
8000명에 달한다.
/국제통상과 041-635-2254



사과농장 햇빛차단망 효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과
원 온도는 3도 이상 하락했고, 일소피해는 차광 전 30%에서 5~1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
업기술원은 8월 3일 햇빛 차단망 현장평가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 공유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171

충남 농식품 백화점서 만나요
갤러리아 하반기 입점 품평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갤러리아 백
화점 아름다리 하반기 입점 품평회’를

개최했다.
1차 품평회에서 제품 표시사항에 대
한 법적 기준을 검토했으며, 2차에서
는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다리 담당들이
제품 품질 및 유통경쟁력, 상품취급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아름드리리는 지역농식품 업체의 판로
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
터의 전담기업인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분이 상생자원에서 제공한 매장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21

광천 독배 토굴 새우젓 개발의 유래와 비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알려주는 충남학
- 광천 독배 토굴 새우젓

광천독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보령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였다.

광천독배 길옆으로 길게 늘어선
당산에는 이십 여 곳의 토굴이 있
다. 이 토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토굴새우젓’을 숙성시키
고 있다.

토굴 속에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시원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간 기분
이다. 토굴의 평균 온도는 일 년 내
내 섭씨 14도에서 16도로 고르게 유
지된다. 그야말로 새우젓 숙성 장소
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광천 독배 토굴 새우젓은 1950년
대 윤병원씨로부터 시작된다. 윤병
원씨는 원래 광산에서 일했던 경
험이 있었다. 이 광산 경험이 토굴
새우젓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금광이나 탄광은 굴속이므로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 모습.

항상 시원했던 경험을 떠올린 것
이다.

마침 독배마을 뒤편에는 예전에
금광을 했던 토굴이 있었다. 윤병원
씨는 한여름에 새우젓 수확 독을 금
광 토굴에 넣어 보았다. 서너 달이
지나가고 가을에 토굴 속으로 들어
가 새우젓 독을 열어보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색깔도 좋았고 냄새도
좋았다. 새우젓 색깔이 발가스름하
고 살아있는 것처럼 탱글탱글 먹음
직스러웠다. 맛을 보았더니 지금까
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였다.

윤병원씨는 자신감을 얻어서 토굴
새우젓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기 시
작했다. 우선 독배마을 당산 언덕에
토굴을 파고 새우젓을 숙성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광천 독배 토굴

새우젓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이다. 토굴 새우젓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토굴을 파기
시작했다. 토굴이 하나 둘씩 늘어나
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이다.

토굴의 규모와 모양도 다양하다.
길게 한 줄로 이어진 일자형 토굴,
토굴 가운데쯤에서 양옆으로 갈라진
Y자형 토굴, 한 줄로 이어지면서 옆
으로 여러 줄이 빗살처럼 뻗어나간
쇠스랑 모양의 토굴 등 다양하다.

토굴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갈라
진 것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새우젓은 계절별로 시차를 두고 토
굴에 들어와 숙성된다. 계절별로 옆
쪽 갈래 굴에 따로따로 보관하여 시
차를 두고 반입과 반출에 편리하도
록 깊은 지혜가 담겨있다.

토굴의 규모는 저장하는 드럼통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이 토굴들마다
적게는 50에서 100드럼, 많게는 500에
서 700드럼까지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도 있다. 일 년 내내 변하지 않
는 시원한 온도와 서해바다에서 불어
오는 해풍이 맛있는 광천독배 토굴
새우젓을 만드는 비밀이다.
/김정현 내포구비문화연구소장

‘청년창업 팝업스토어로 놀러오세요’

부여 청년창고서 9월 23일까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여군 구
암면 일원 부여 청년창고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청년창고 입주 창업가가 참여해 사
업아이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행사는 카페 창업기업인 ‘De CAF
바렌’의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디
자인 굿즈 제품 전시 및 판매하는

‘살구스튜디오’, 규암면 문화기획자
로 활동 중인 ‘조각수집’, 다육이·도
자기 키트 제작 및 체험을 전문적으
로 하는 ‘그담공방’, 부여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및 판매하는 ‘시
월’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부여 청년창고는 마을내 활용도가
떨어진 폐창고를 청년 창업 공간으
로 조성한 곳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837-0623

규제특례 사업 계획 상시 접수

도내 본사, 공장 둔 기업 대상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년 3
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
치를 위해 규제특례 대상 사업을 발
굴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
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
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
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
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규제특례 사업 계획 접수는 도 산
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041-589-
0118)으로 문의하거나 충남테크노파
크 누리집을 참고해 제출하면 된다.
/산업육성과 041-635-3929



수산경영대학과정에 참여하는 (예비)수산전문가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수산발전 이끌 수산전문인력 양성

수산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8월 5일 수
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산경영 대
학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도내 15개 시군 어선·
양식 어업인 중 패류 및 해삼, 굴, 어
류, 새우 양식에 관심이 있거나 수산
업 발전의 비전을 가진 25명을 대상
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10월 26일까지 13주 동안
한서대와 수산 관련 현장에서 교육
을 받는다.
교육은 수산업의 재도약을 꾀할 수
있는 양식품종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을 위해 ▲수산업의 미래와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수산정보와 기
술의 저변 확대 방안 ▲현장보급형
실습위주로 구성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2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청년문화 중심 대학로, 청년이 꾸민다

도,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
20일까지 참여청년 10명 모집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대학로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댔다.
도는 천안 안서동 대학가 및 천호지 주변을 청년문화의 중심인 대학로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0일까지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安Young해)’ 참여 청년 10명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부터 도,

천안시,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청년활동 공간 의견제시 등 활동을 한다.
참여 자격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에 관심 있는 19~39세 청년으로 웹자보 정보무늬(QR코드) 및 네이버 설문조사 폼(<https://naver.me/5bRwowxV>)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안 안서동은 5개 대학 4만 8000여 명의 대학생이 상주하고 있으나, 청년 활동 공간 등이 부족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청년들은 그동안 대학가 활성화 를 위한 문화공간 마련 및 환경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 공약에 반영됐다.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는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이 발굴한 사업은 내년 대학로 청년문화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정책과 041-635-3991



어린이 교통안전영상 교육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교통연수원·도경찰청·도교육청과 협업해 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홍보동영상’을 도내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 홍보동영상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시 주의할 점 ▲무단횡단 금지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금지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등에서 영상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자살예방 협업 추진으로 자살률 낮춘다

추진상황 보고회서 협업과제 점검
충남도는 8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경제·사회·일자리·의료·복지 등 도와 시군의 전 분야에서 자살예방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시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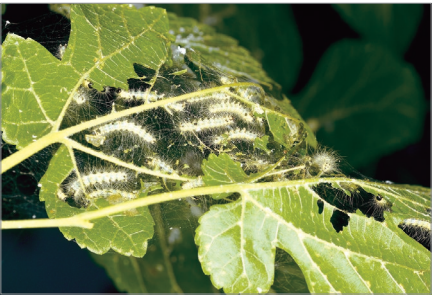
올해는 신규 과제 122건을 포함해 도 53건, 시군 410건 등 총 463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는 ▲자살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재난피해자 자살방지 심리회복 지원 ▲산후울음증의 선제적 관리로 자살징후 제로화 ▲노인 맞춤형돌봄 특화서비스를 통한 노인자살예방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과 연계한 유가족 자살예방관리 ▲우울증

초진 환자 진단비 지원 ▲정신응급대응 체계구축 등을 발표했다.
시군에서는 ▲자살예방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 관제센터 통합 운영 ▲가족폭력 피해자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살예방 ▲생활 속 교통안전 및 자살예방 홍보 등 현장과 밀접한 신규과제 위주로 발표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 발생 급증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충남 전역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나방류에 대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 과수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흰불나방 1화기(월동성충) 발생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2화기(2세대성충) 발생량이 급증했다.
미국흰불나방은 산란량이 600개 이상으로 알집을 형성하며, 3령 이상 넘어가면서 주변으로 분산하는데 이 때 섭식량이 많아져 농작물에 큰 피해를



미국흰불나방.
입한다.
/도 농업기술원 041-635-6115

딸기육묘, 탄저병 관리 중요

병든묘 신속 제거, 약제살포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딸기육묘 시 탄저병 방제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더욱 심하게 발병하며, 물기나 일액 및 이슬 등 식물체 결로 시간이 길

어지는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한다.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는 식물체의 물기가 빠르게 마르도록 환기 관리와 육묘베드의 상토가 과습하지 않게 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병든 딸기묘 발생 시 신속한 제거와 2차 감염을 줄이기 위한 주변부 약제 방제도 중요하다.
약제방제시 약제 살포 시 잎부터 관



딸기육묘 앞탄저 사진.
부까지 흘러내리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45

집중호우 현장점검 신속 대응 주문

보령 벼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 펌프장 등 주요 시설점검 및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8월 11일 오전 호우특보에 따라 홍성군 광천읍 삼봉 배수 펌프장을 방문해 유수지, 펌프, 수문, 스크린, 수·배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어 보령시 주교면으로 이동해 벼 침수 피해지를 살피며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 지역은 낮 12시 기준 천안, 공주, 보령, 계룡, 논산, 부여, 서천,

청양 8개 시군은 호우경보, 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도는 비상2단계를 유지해 비상근무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119소방 구급활동을 통해 밤사이 인명구조 2건(3명) 등 총 124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시설 피해 현황은 사면 유실, 도로 침수, 전신주 전도 등 공공시설 15건이며, 이중 14건은 응급복구 및 조치 완료하고, 부여 지역 사면 일부 유실은 조치중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마당 침수 등 3건이며, 농경지는 벼 152.8ha, 콩 2.5ha 등 총 161.3ha로 집계됐다.
/자연재난과 041-635-3252

도내 웹툰 예비작가 역량강화 캠프

10개 팀 선정 10월 본선대회 진출

충남도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은 웹툰 예비작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한 ‘2022 제1회 충남 웹툰 부스트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심사결과 대상은 백석문화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에 재학 중인 전예은 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문아람/백민경(팀), 우수상에는 문선영 씨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수상자를 포함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상위 10개 팀은 오는 10월 본선대회인 ‘2022 충남 웹툰 피칭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2

도민 안전 위해 전시 대비 훈련 ‘철저’

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충남도는 8월 9일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2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총괄보고, 실·국·본부 보고, 행정기관 소산훈련 및 전시직제 편성 훈련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부서별 올해 을지연습 중점 목표와 중무사태별 주요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 연습 계획을 공유했다.
또 도 청사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비해서 청사 내 다른 시설 등 비교적 안정된 장소로 소산·이동해 전시업무 수행하는 행정기관 소산훈련 계획 등도 검토했다.
/안전정책과 041-635-2174

충청남도 도정신문

빠르고 쉽게

모바일로 보는 방법!

- 최신 도정·의정소식과 문화·생활정보를 쉽고 빠르게!
- 사람냄새 가득한 정겨운 충남이야기들
- 다양하고 품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실행하기 →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정신문'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여름철 농촌체험농장으로 떠나요”

농촌교육농장·체험농장 인기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사전 문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휴가철 소중한 추억을 만들 힐링 장소로 도내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을 소개했다. 교육농장은 아이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습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체험농장은 다원적 가치인식과 긍정적 효과, 치유농장은 힐링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다.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체험농장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도내 농촌체험농장은 총 221곳이다. 천안 ‘봉황52’ 농촌교육농장은 오이 열매가 열리기까지 성장환경에 대한 이해교육은 물론, 오이를 직접 수확해



예산 충의치유농원에서 아이들이 꽃 활용 체험을 하고 있다.

오이 피클, 오이잼 등 요리체험을 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기념관, 홍대용과학관 등을 관람하는 것도 좋다. 예산 ‘오색꽃차 충의치유농장’은 꽃으로 마음을 보듬는 원예치유 농장으로 꽃양갱·꽃차 티백·꽃 식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농

가맛집 ‘가야수라간’과 가야산, 덕산 온천 등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용 가능한 체험프로그램 및 숙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 041-635-6186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대장균군 부적합 등 6곳 적발

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조치했다. 점검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4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40

천수만 고수온 경보…현장 대응 강화

“양식어가 피해 파악 지원할 것”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3일 오후 2시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충남도는 고수온 경보에 대응해 가두리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을 지속하고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데 응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액화산소

발생기, 차광막, 어류용 면역증강제 지원 등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어가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구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멸성 보험이지만 보험료의 80% 이상을 보조해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하고 있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지역사회건강조사 10월까지 실시

흡연·음주·식생활 등 방문조사

충남도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0만 도민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별로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다.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구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코로나19 감염예방 분야 등 총 19개 영역, 138문항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 가구에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6

일본에 반출된 백제시대 삼족배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 일본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 소장 충남 유물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1998년 개관한 박물관으로 와세다대학교 교수였던 아이즈야이치(會津八一(1881-1956))가 수집한 약 2만 건에 이르는 자료들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아이즈야이치는 일본에서 서예와 와카(和歌:일본 고유의 시)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에서는 나라 시대의 미술과 동양사를 가르친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나라 시대 미술을 연구하는데 그 원류에 해당하는 한국미술, 중국 미술에도 주목하고 한국의 옛 기와나 전돌, 중국의 명기(明器), 거울과 같은 고미술을 자비로 구입하였다.

그가 구입 및 수집한 한국의 유물들은 고구려 기와 40점, 백제·신라·가야의 기와를 합쳐 450점 등이 있으며, 인도·중국·한국의 불상, 거울 몇 점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충남의 유물은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포함한 토기, 기와, 분청사기 등이 있다.

아이즈야이치의 수집 유물 가운데 발굴지가 ‘공주’로 표기된 토기 4점이 있다. 웅진백제시대에서 사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입수 경위를 알 수 있는 명세표가 붙어 있다. 이 토기 4점을 살펴보면 단경소호, 소호, 삼족배, 토기뚜껑이다. 이 토기들의 입수 경위는 1930년대 일본인 가루베 지온(經部慈恩(1987-1970))이 소장하던 것들이다. 그는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근무하기도 한 인물이다.

토기들은 모두 공주 소재 고분을 사굴(私掘)하거나 수습하여 소장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소장된 시기가 1930년, 1931년, 1932년이라는 것이 명세표에 표기되어 있다.

아이즈야이치는 이 4점의 토기를 가루베지온에게서 입수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마도 가루베지온이 1946년 『백제미술』이란 책을 출간할 때 아이즈야이치가 감수를 맡았던 인연으로 인해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4점 중 살퍼불 토기는 삼족배로 발이 세 개 달린 토기로 백제 웅진기에서 사비기 초에 제작된 것이다. 삼족배는 보통 높이가 5.0~7.0cm, 입지름이 10.0~15.0cm 가량으로 납작한 몸체에 세 개의 역삼각형 다리가 달린 토기이다. 뚜껑받이 턱을 갖춘 유개식(有蓋式)이지만 현재 뚜껑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삼족배는 삼국시대 토기 가운데 백제 특유의 기종이며 이 같은 형식은 5세기 이래 7세기까지 유행하였다. 이 토기의 바닥 뒷면에는 토기 이력을 보여주는 명세표가 붙어 있다. 명세표에는 1931년 공주에서 발굴된 것으로 가루베지온이 근무하던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소장품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현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番號	品名	土器
	發掘地	公州
	時日	昭和六年月日

※ 삼족배 뒷면에 붙어 있는 명세표 내용

내용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 와세다대학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4.

충청남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금 신청하세요!

충청남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 청

2022.07.10. ~ 2022.12.15.(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대 상

충남 도 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음식 또는 택배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택배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 원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지원기간 내 소급 지급)
※ 지원 대상 기간: 2021.12.01. ~ 2022.11.30.

방 법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시스템 신청 및 문의 “충남일터넷 <http://cnilter.or.kr>”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접수

절 차

접수시스템 접속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메뉴 클릭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항목별 온라인 작성

신청완료 확인
신청접수 완료화면 확인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서류 등록 완료

대상자 안내
지급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보험료 지급
개별 안내 후 개인계좌 입금

문 의

충청남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041-330-4943

QR code

“충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검색

충청남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도사민정협의회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집에서 키운다

사육기술 연구 인공증식 성공
내년 사육키트 개발·보급 추진
곤충산업 활성화, 농가소득 창출



두점박이사슴벌레.

충남도가 멸종위기 곤충 사육기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현재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육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우리나라 제주도과 중국, 몽골, 타이완 등에 분포해 있다.

산업곤충연구소의 이번 기술 연구는 ▲새로운 애완·학습용 곤충 발굴

▲최적의 사육 기술 확보 및 농가 보급 ▲애완동물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득 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곤충연구소는 지난해 두점박이사슴벌레 산란 기간, 부화율 등 산란 환경을 조사하고, 서식지 환경 조사와 유충·번데기 생육 기간 조사를 마쳤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제주도 일원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10개체를 포획, 인공증식에 성공하며 50개체를 확보했다.

인공증식 성공에 따라 산업곤충연구소는 최근 포획한 개체수 만큼 당초 포획 장소에 방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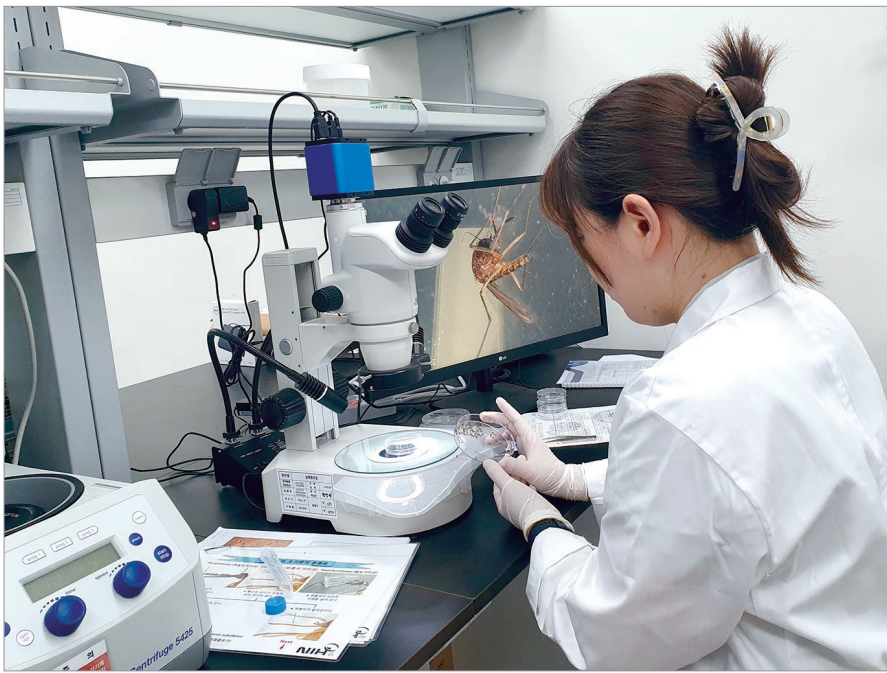
올해에는 두점박이사슴벌레 대형 개체 생산에 성공했으며, 사육 환경별 생육 특성, 산란 배치별 산란 수와 기간, 부화 기간, 부화율 등을 살핀다.

내년에는 사육 온도별 생육, 월동 유무에 따른 산란양 조사와 함께 사육키트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야생 두점박이사슴벌레의 경우 환경청 허가 없이는 포획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인공증식 개체는 증명 절차 등을 거치면 일반 가정에서도 사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곤충 사육 농가는 2021년 기준 3012호이며, 도내 곤충 사육 농가는 364호다. 이 중 사슴벌레 사육 농가는 전국 129호, 충남 12호이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28



충남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1주차 도내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본뇌염은 모기가 전파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자의 95% 이상이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46

제68회 백제문화제 서포터즈 발대식

11월 20일까지 SNS 홍보활동

(재)백제문화재단은 8월 5일 ‘제68회 백제문화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발대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개팀이 참여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서포터즈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백제의 역사와 문

화, 백제문화제 등을 주제로 카드뉴스, 영상, 블로그용 기사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백제문화제 서포터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서포터즈 공모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였다.

/(재)백제문화재단 041-635-6991

위안부 피해자 아픈 역사 잊지 않길

충남도서관서 사진 기록전 개최

충남도는 제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을 맞아 충남도서관에서 8일부터 14일까지 사진 기록전을 개최했다.

사진 기록전은 피해자들에게 존엄을 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역사동아리 학생 등 참석자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생애를 비롯해 사진으로 보는 위안부를 주제로, 사진 10편과 할머니들의 암화작품 16점 등 총 26개 작품이 전시됐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8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책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방역 교육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양식 어업인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수산물전염병과 공중위

생상의 위해방지, 수산물 질병 예방, 수산물질병관리법 등’을 주제로 8월 4일 서산문화원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했으며, 18일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74

머드박람회·군문화엑스포 성공 기원

(주)계룡도시개발 입장권 기부

충남도는 (주)계룡도시개발이 지역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해양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8000만 원의 입장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받은 입장권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10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7000만 원이다.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전국 체육회 회원 등에게 전달한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딸기농업인 재배기술 강화

제2회 딸기농업인의 날 개최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8월 10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제2회 충남딸기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딸기산업 발전을 위해 시군 딸기연구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배기술 세미나, 신

기술 및 농자재전시 등 딸기 농업인의 정보습득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냉난방시설, 스마트 시스템, 하우스 자재, 육묘포트, 작물보호제 및 영양제 등 다양한 농자재 제품이 전시돼 재배농가의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44

충남 시군 특례발굴 한걸음 더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회의

충남도는 8월 11일 도청에서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로 발굴한 특례에 대한 구체화 및 보완 작업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차 회의는 시군별 전담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시군이 발굴한 특례의 추진사항 보고와 민간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해 행·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605

기나긴 무명 화가 시절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여정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대나무 작품 〈풍죽〉으로 첫 입선을 한 이응노는 더욱 맹렬하게 그림그리기에 매진한다. 스승 해강 김규진의 고된 집안일과 문하생으로서 그림 수련을 동시에 해내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었지만, 고암의 부지런함과 꿈을 향한 의지로 2여년 정도를 버텨내었다. 그러나 고된 집안일로 인해 그림 그릴 시간이 허락되지 않게 되자 창작활동에만 오롯이 전념하기 위해 스승의 문하를 떠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응노는 우선 궁여지책으로 표구사에 취직을 하여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조금 지나지 않아 간판집에 취직을 하여 간판 글씨를 쓰고, 극장 간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다(이응노는 이때 처음으로 서양식 음영법을 활용하여 입체감이 돋보이는 제작방식을 접했다고 하며, 표구 기술을 배운 덕분에 스스로 자기 작품을 표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궁여지책이 이제는 본업이 되었고, 서울, 공주, 대전을 거쳐 전주에 내려와 “개척사” 간판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업가로서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면서 직원을 30~40여명을 둘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그림을 그려 서울에 계신 스승께 보내어 평가를 받았고, 전주지역의 문인화사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며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화가로서 이름을 얻기까지, 모든 예술가들의 숙명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무명 화가의 시절이 이응노에게도 다가왔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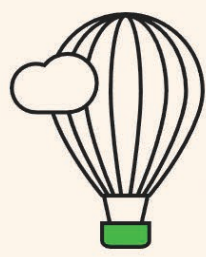
해강 김규진, 묵죽도,비단에 수묵, 132.5x35cm,연도미상



고암 이응노, 묵죽종이에 수묵, 135x35cm, 연도미상

▶ 작품설명

원편이 이응노의 스승 해강 김규진의 묵죽도이며, 오른편이 호 죽사를 사용하던 청년 이응노의 묵죽도 작품이다. 대나무로 공간의 삼분할 방식과 하단의 적은 수의 줄기와 잎, 중앙의 초목을 사용하여 중봉으로 처낸 바람에 날리는 듯 세찬 대나무 잎, 상단의 담묵을 사용하여 뒤로 멀어지는 듯한 원근감을 주는 방식이 모두 스승의 화법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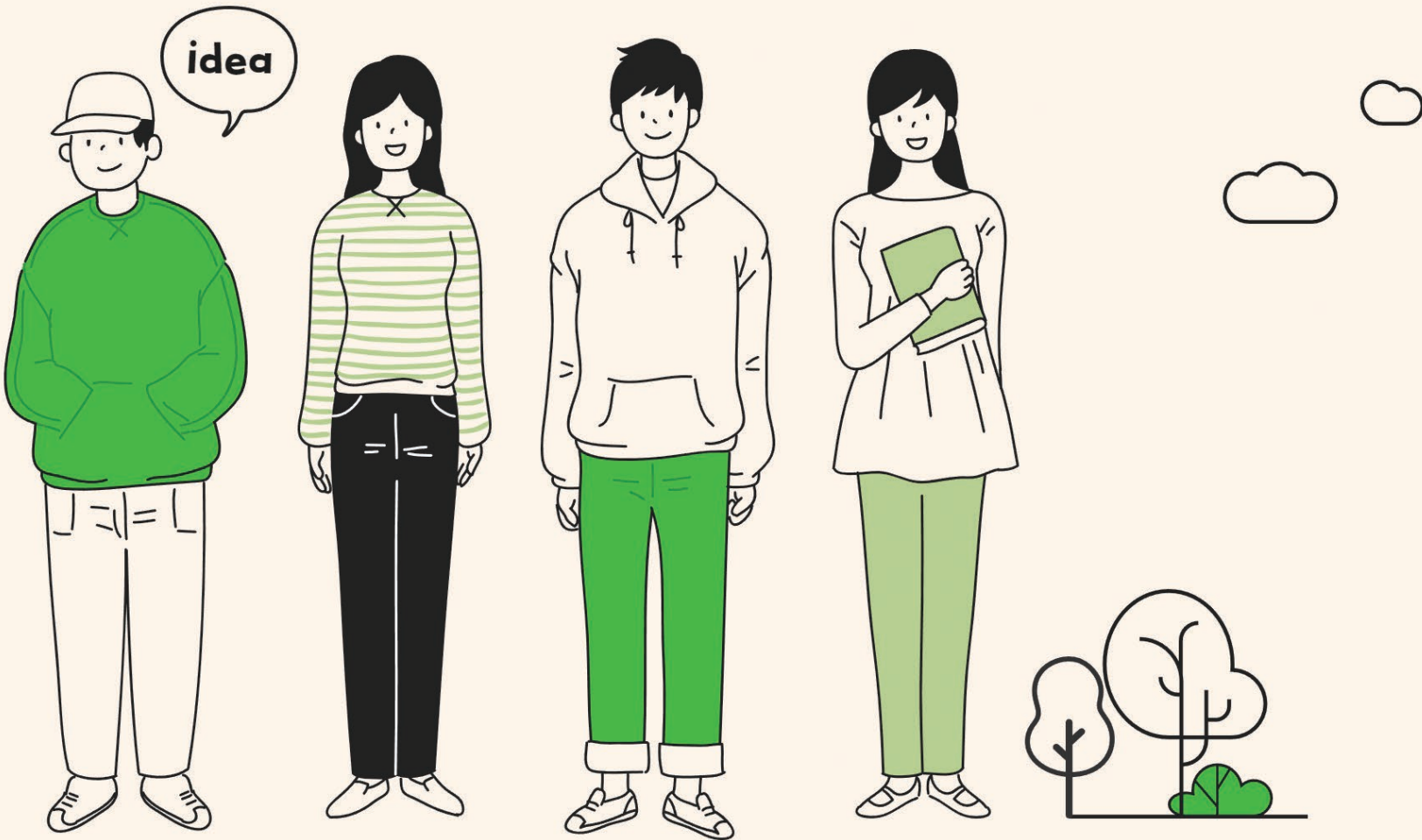


WELCOME

안서동 청년문화발굴회 (安Young해)

청년 참여자 모집

천안시 안서동을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볼래요?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2. 8. 1. ~ 8. 20. (토)
- 모집인원 : 10명 내외
- 모집대상 : 천안시 안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청년(19세~39세)
- 참여내용 :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 및 천호지 주변을 청년 문화활동으로 활성화 하기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참가자 혜택

- 개인별 활동 증명(위촉장 수여)
- 활동 우수자 표창(충청남도지사)
- 참여시 실비 (교통비 등)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설문폼으로 제출(URL, QR코드)
<https://naver.me/5bRwowxV>
- 제출기한 : 2022. 8. 20.(토) 까지



주최

“볼거리·먹거리 풍부한 8월엔 보령으로 오세요”

관광공사, 이달의 여행지 선정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
상화원·무궁화수목원·외연도 등

[보령]한국관광공사와 하나투어가 ‘월간 19투어’의 8월 여행지로 보령을 선정하고 여행상품 홍보 및 판매에 나섰다.

월간 19투어는 하나투어의 ‘1’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여행정보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9’를 더해 만들어진 국내 여행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매달 ‘이달의 여행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의 관광 정보와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이번 8월에는 보령이 여행지로 선정됐으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로 주목받고 있는 보령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월간 19투어 및 하나투어 누리집에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제25회 보령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 상화원, 무궁화수목원, 외연도, 무창포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짚트랙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지들의 여행상품이 있다.

이밖에 월간 19투어 누리집에서는

보령 관광지를 맞으면 추첨하여 180명에게 디저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하나투어 누리집에서는 보령 여행상품을 특가로 선착순 판매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각 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선정하는 ‘8월 추천! 가볼만한 곳’으로 보령의 외연도를 선정하기도 했다.

외연도는 보령시에 속한 90여 개의 섬 중 육지에서 가장 먼 섬으로 ‘멀리 해무에 가린 신비한 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해가 나고 해무가 걷히면 봉긋하게 솟은 봉화산과 동백나무가 뻗뻗이 들어선 천연기념물 상록수림, 둥글둥글한 자갈의 몽돌해수욕장 등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녔다.

시는 보령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시티투어, 택시투어, 반나절투어 등을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관광과(041-9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8월의 보령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재미있는 곳이다”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휴가로 보령을 방문하여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고맏나루 쌀 이라크 수출 선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맏나루 쌀’ 올해 첫 이라크 수출길

공주시, 지난 5일 수출 선적식

2019년부터 연 30톤 규모 출하

[공주]공주시의 지역 대표 쌀 브랜드인 ‘고맏나루 쌀’이 올해 첫 이라크 수출길에 올랐다.

공주시는 5일 의당면 오인리 통합 RPC에서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윤구병 시의회 의장, 안종진 농협지부장과의 이인, 우성, 정안, 의당조합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고맏나루 쌀 이라크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고맏나루 쌀의 이라크 수출은 2019년부터 매년 30t 규모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역시 이번 8.5t 분량에 이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수출길에 오를 예정이다.

삼광벼 단일품종인 고맏나루 쌀은 전량 계약재배로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며 이라크 현지 근로자와 교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초저온시설에서 보관하는 수출용은 온도 변화가 심한 중동에서도 품질 유지를 위해 인체에 해가 없는 선도 유지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고맏나루 쌀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통 경로 다변화와 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태안군청 최성민, ‘백두급’ 서 올해 세 번째 꽃가마

보은장사씨름대회서 우승

씨름계 신선한 돌풍 주목

[태안]태안군청 씨름단(감독 곽현동) 최성민 선수가 올해 세 번째 백두장사에 오르며 전국 최강자 자리를 굳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청 소속 최성민(20) 선수는 지난 3일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140kg 이하급)에 등극했다.

8강에서 증평군청 소속 윤성희 선수를 2:1로 꺾은 최성민 선수는 4강에서 창원시청 소속 서경진 선수를 만나 2:0 완승을 거둔 데 이어 결승에서도 수원시청 소속 서남근 선수를 3: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꽃가마를 탔다.



태안군청 씨름단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에서 열린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오른 최성민 선수는 한 달 후 열린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다시 한 번 백두장사에 오르며 씨름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최성민 선수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태안군청 씨름단 동료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양곡창고에 예술을 더하다

당진 신리성지 ‘치타누오바’

전시 공간·휴게시설 탈바꿈

[당진]충청남도 문화재이자 천주교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인 다블뤼주교 유적지가 있는 당진의 신리성지 내에 전시 및 휴게 등을 위한 다목적 시설이 개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공간은 기존 양곡창고였던 장소를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된 곳으로, 치타 누오바(Citta Nuova)로 명명했다. 치타 누오바는 이탈리아어로 새로운 도시를 의미하며, 성지가 위치한 ‘신리’와 같은 뜻이다.

신리성지는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피성지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길’인 버그내순례길 13.3km의 종착지이기도 해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시를 통한 관광객의 문화갈증 해소와 쉼터 제공으로, 당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리성지 김동겸 주임신부는 “역사적·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신리성지에는 문화와 관광이라는 개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관한 치타 누오바는 기존 순교미술관과 더불어 신리성지와 함께 종교를 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관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

/당진시 제공

지역단신

아산시, 스마트정류장 추가 설치

[아산]아산시가 ‘스마트 버스승강장’ 4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에 나섰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조명시설, 핸드폰 충전기, 무선 와이파이,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정보 시스템(BIS)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을 집약한 최신행 대중교통 시설이다.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 예산 100% 사업으로는 충남 최초로 당정면사무소 지중해마을 정류소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시는, 유동 인구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고속터미널 앞 ▲배방읍 장호빌딩 앞 ▲음봉농협 앞 삼거리 ▲둔포면 오거리 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아산시 제공

예산군,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예산군이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청소년(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분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군 제공

서산시, 자활급여 3% 인상

[서산]충남 서산시가 8월부터 자활근로사업의 자활급여 단가를 3% 추가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가 인상은 소득 보장금액을 확대해 최근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치로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급여액이 142만1000원에서 146만3000원으로 인상되고,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액은 123만1000원에서 12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자활근로 참여자는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041-668-23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제공

서천군, 스테리움 풀장 개장

[서천]서천군 소재 캠핑장인 ‘스테리움 서천’이 지난달 29일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했다.

이곳 물놀이시설은 가족단위 이용객들도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형의 풀장으로 6m 길이의 에어풀장과 2가지 에어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시설로 구성됐다.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운영되며, 날씨 상황에 따라 연장·축소될 수 있다.

물놀이시설 이용자는 ‘스테리움 서천’ 투숙객만 가능하며 별도의 이용료 없이 어른과 어린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서천군 제공

논산문화원, 수강생 모집

[논산]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에서는 ‘충청유학의 산실, 논산 바로알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시민을 위한 고품격 인문학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충청 유학과 관련된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산의 유교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오는 17일부터 ▲고려말~조선초 성리학 도입기의 논산 ▲소론의 영수 명재 윤증과 노강서원 ▲조선 후기 논산지역의 성씨와 문종 ▲연산전 따라 자리 잡은 명문가 ▲논산지역 문종의 전통적 삶 등의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련 유적지 관외 답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논산시 제공



조롱박 터널에서 무더위 식혀요 [홍성]지난 6일 오후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에서 열린 제9회 원천마을 조롱박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조롱박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의 품앗이마을 지원사업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마을회관 앞에 조성한 110m 길이의 조롱박 터널을 활용해 에너지자립 마을의 특성을 살려 진행됐다. /연합뉴스

부여에서 만나는 이색 역사체험교육 ‘호응’

놀이·굿즈로 백제 역사 익히
매 학기·학교별 신청 받아

[부여]부여군이 사회적기업 백제에서 놀자(대표 정여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역사체험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며 수월성을 인정받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지역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교육하고 즐겁게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부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여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대상이다. 올 1학기에만 8개 학교, 17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업에는 특별 제작된 VR체험 키트, 컬러링 등이 등장한다. 백제 마지

막 수도 사비와 백제금동대향로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혔다. 인간이 만든 어난 문화유산과 현대 디지털 기술의 접목에 대해서도 생각거리를 던진다.

‘백제외교사신 체험프로그램’은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외교사신 여권 만들기 ▲금동대향로를 지키는 봉황과 용 캐릭터에 복주머니 던지기 ▲유물카드를 대형 홀로그램에 비춰 백제금동대향로 살펴보기 ▲부여10품을 활용한 서동10품 마켓체험 등 흥미진진한 활동으로 가득하다. 체험을 마친 후엔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고 수료식도 실시한다.

조선시대 부여를 만나보는 수업도 이채롭다. 5·6학년들이 부여를 떠올리면 으레 연상되는 백제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속 부여를 기억하고 생각을 확장해 보는 수업이다. 선비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림자놀이

키트’도 준비했다. 수북정에서의 과거 시험, 다양한 민속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온라인 문화유산 관광 기획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유산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중학교 자율학년제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 눈높이로 백제 문화유산 안내문을 만들어본다. 백제 사비시기의 우수성, 문화재 등을 직접 검색하고 만들며 지역의 자부심과 지식을 한 번에 알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매 학기 초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선착순으로 학교별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22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과 함께 ‘2022 명품교과서투어’ 신청을 받는다. 세부 프로그램은 수행사업자인 백제에서놀자 누리집(www.baekjeplay.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 제공

이탈리아 청년, 한국 농업 매력에 ‘흠뻑’

레비 씨, 홍성서 대안 농정 연구
청년 농업인·귀농귀촌 정책 등

[홍성]친환경 유기농업특구,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원지, 농촌형 민관 거버넌스가 살아 숨쉬고 있는 홍성군의 대안 농정과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어느 미국 출신 청년이 홍성군을 방문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소재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Rome)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레비 로키(Levi Rokey)는 미국 캔자스주 출신의 초급연구자로서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과소화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다.

레비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홍성군에 정착한 청년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으로서 농촌을 살아내는 여정을 면담 조사했으며, 홍성군의 대응을 탐구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다.

레비는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인구청



레비 씨(사진 맨 왼쪽)이 청년농업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년팀을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담을 진행했으며, 주요 질문은 ▲청년 및 초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 ▲타 지자체에 비해 홍성군에 귀농·귀촌하는 청년이 유달리 많은 이유를 살폈다.

더불어 ▲환경과 농업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의 역할 ▲청년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홍성군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홍성군의 농촌정책을

살펴봤다.

최기순 정책기획팀장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홍성군에는 아직 건재하다는 지역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평민마을학교, 홍성통의 분과 청년통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레비는 “농촌사회학자가 개념화한 ‘새로운 농민’을 홍성군에서도 만나게 되어 흥미롭게 현장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히며, “홍성군의 대안 농정 기틀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제공

공주시 청년센터 개소 청년활동 거점공간 역할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열린 소통 공간으로 운영

[공주]공주시는 청년 자립역량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주시 청년센터 개소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과 청년대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중동 일원에 조성된 청년센터는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지하 1층 한식복도 구조로 건립됐다.

강의실, 상담실, 세미나실, 정보화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었으며 청년

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취·창업 지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꾸준한 소통과 대화로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되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지역 청년 누구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2023 충남체육대회 상징물 선정

마스코트, 힘차게 뛰는 ‘인삼’

[금산]금산군은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에 사용할 구호와 엠블럼·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구호 공모에 나서 128건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구호 3점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대상 ‘금산에서 하나되 GO! 도민모두 함께하GO!’, 최우수상 ‘We풍당당 금산! 도약하는 충남!’, 우수상 ‘생명의땅 금산! 미래의꿈 충남!’ 등이다.

엠블럼은 인삼을 의인화해 힘차게 뛰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금산의 ‘금’



을 연상시켜 개최도시 금산을 강조한 디자인이 선정됐다.

마스코트는 금산의 캐릭터인 ‘삼둥이’와 충청남도의 캐릭터인 ‘충청이’와 ‘충나미’가 함께 성화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금산과 충남의 화합을 나타내는 디자인이 선정됐다.

/금산군 제공

청양군, 청년 월세 지원 접수

월 20만원씩 12개월 지급

[청양]청양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애 1회 한정에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급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 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전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양군 제공

“도서관에 없는 책도 대출해 드려요”

대차서비스 요금 일부 지원

[계룡]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전국 도서관의 자료를 관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책바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이 가까운 도서관에 없는 경우 협약된 다른 도서관의 책을 택배로 신청하여 관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books.nl.go.kr)에서 신청 후 관내 계룡·엄사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하면 된다.

왕복 택배비는 건당 5540원으로 시는 이중 2840원을 지원, 대출자는 차액인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책바다 및 도서관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도서관(042-840-3602) 또는 엄사도서관(042-840-3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제공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이유

내포칼럼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맨정신이 힘겨운 사람
구역질 나는 과거의 기억들. 오늘 감
당해야 하는 폭력과 불안. 꿈도 꾸고
싶지 않은 미래. 삶은 구질구질하다.
구씨(손석구)는 눈 뜨자마자 또 술을
들이붓는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다. 술 없이는 나를 견딜 수 없다.
박해영 작가의 2022년 작 <나의 해
방일지>의 구씨에게 술은 약이다. 아
침부터 쓰러져 잠들 때까지. 쉬지 않
고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이 약은 통
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몸이 아
닌 마음의 통증. 그래서 몸이, 그리고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고 있지만 마실 수밖에 없다. 맨정신
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니까. 술이
들어가면 그래도 맨정신으로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덜 힘들다. 그래서 마신
다. 그의 주머니에는 늘 술병이 꽂혀
있다. 마치 약병처럼.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이유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아물고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치유된
다.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잘 아물지 않고, 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구씨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는 흉터가
남아 있을지언정 이제는 구씨를 아프
게 하지 못한다. 매일 구씨를 괴롭히
는 것은 마음에 입은 상처다. 왜 마음
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는 것일
까?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그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잘 소
독하고, 밴드나 거즈로 안전하게 감싸
기도 한다. 잘못해서 상처를 건드렸다
가는 상처가 덧나게 되고, 상처가 낫
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와 다르지
않다. 상처를 다시 건드려 덧나게 만
들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길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몸에
난 상처와는 달리 마음에 난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우
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이다.

오래 전 마음의 상처가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
관하게 갑자기 현재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의 되새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되새김
(rumin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되새김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감정도 되새김
한다.

천사들만 만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어쩌면, 천사보
다는 악마를 더 많이 만나야 하는 것
이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 과
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처받게
된다.

되새김을 통해 자신이 상처받았던
사건과 가해자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상처를 다시 한 번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뒤틀이 없다고 하
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상처
를 주었던 사람과 그 때의 일을 단번
에 잊을 수는 없다. 많은 경우에 사람
들은 자신이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의
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되새김한
다. 그리고 이러한 되새김은 이미 난
상처 위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몸의 상처는 아물 때까지 다시 건드
리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수도 없이 다시 되새김하면서 상
처를 덧낸다. 몸에 난 상처보다는 마
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몸의 상처도 다 아물기
전에 다시 건드리면 상처가 덧나는 것
처럼 마음의 상처를 되새김하면 할수
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상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았던 것들도 이를 곱씹으면 곱
씹을수록 더 커지고 깊어진다.

이므로 반드시 꾸준히 병원에 방
문하셔야 합니다. 약물치료로 안압
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야 손상이 진
행되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더 나아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
다. 흔히 시행되는 수술로는 섬유주
절제술 또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
하며, 이 경우 치료 예후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건강
검진에 안저 검사가 포함되어 녹내
장을 미리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행된 녹내
장이라 해도 안압 하강제를 잘 사용
하고 정기적으로 경과관찰 한다면
진행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잘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김 광 현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안과장

여론조사 ‘신뢰도’ 높아야

생생현장리포트



김 광 섭
특급뉴스 편집국장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의 20%대로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
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유
지했던 지지율에 비하면 무척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언론에서 발표하는 지
지율이 우리나라 온 국민이 생각하는
그 지지율이 맞을까? 그 지지율이 맞
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성공한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일까?

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
니다. 여론조사의 방법도 크게 바뀌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을 자기에게 유리
한 사람으로 한정해 실시했을 경우
‘여론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 선거에서도 악용
(?)됐다. 전화 자동응답 여론조사에
서 “당신은 A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시면 1번을, 지지하지 않으시
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에 2
번을 누르는 순간 “선생님은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전화가 끊어져 버린
것. 그리고 “선생님은 연령대가 20대
이면 2번, 30대이면 3번, 60대이면 6
번을 눌러 주세요”라는 멘트에 6번을

누르는 순간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라며 전화가 끊긴다.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를 끝까지 수
행(?)하려면 “A정당을 지지한다, 20
대이다”라고 거짓으로 응답해야 한
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런 여론
조사를 어떻게 만다.

각 언론사에서 의외해 실시하는 여
론조사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사는 공
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윤
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이기도 하
다. 그런데 기사 한 꼭지를 위해 만
만치 않은 금액이 지출돼야 하는 여
론조사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언론사에서 선뜻 감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
해 조작한 여론조사를 마치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폐단은 반
드시 막아야 한다.

여론조사업체에 지인, 정당인, 지지
자 등의 전화번호를 건네고, 이들에
게 “여론조사 전화 오면 잘 받아 달
라”고 부탁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선관
위가 나서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각
후보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고 나이·성·지역·종교·소
득·학력·정당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
해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및 여론조사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새우젓 같은 여자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5)



소 중 애 동화작가

새벗 편집부장이 새로 생긴 출판사
로 옮겨 가면서 성인 대상 책을 출판
하자고 제안했다. 동화를 쓰면서 못
한 이야기가 있는 차에 잘 뵈다 싶었
다. 직접 쓴 글자 그대로 그림도 그
려서 출판한 그림 에세이가 ‘새우젓
같은 여자’였다.

새우젓은 잡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붙어지는데 오월에 잡아 담근 것은
오젓. 유월에 잡아 담근 것은 육젓.
가을에 잡아 담근 것은 추젓이다.

오젓은 잡히는 양이 적고 값도 비
싸 흔히 만날 수 있는 새우젓이 아니
었다. 가을에 잡아 담근 추젓은 분홍
색깔에 바다에서 건졌을 때 그대로
몸을 유지하고 있어 예쁘지만 값은
맛이 없다. 음식 좀 한다하는 사람들
에게 사랑 받는 것은 단연 육젓이다.
육젓은 값은 맛으로 구수하지만 곱
삭는 과정에서 몸의 형태를 잃었다.
형태는 없지만 김치 담글 때, 돼지
고기 먹을 때, 우렁 젓국 끓일 때, 호
박 볶고 계란찜 할 때 등등 수도 없
이 많은 음식의 맛을 끌어올려준다.
나는 육젓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나는 육젓 같은 사람이 되리라.

내 몸은 사라져도 사람들에게 곱삭
은 좋은 양념이 되리라.’

지금도 나는 육젓 같은 사람이 되
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책이 나오고 십여년이 지난 후 일
이다. 정기점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심전도 검사를 받는데 여검사원의
숨소리가 매우 거칠었다. 좁은 공간
이라서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심전도 검사는 이 친구가 받아야
겠군. 뭔가 잘못됐어.’

검사를 다 받고 옷을 여미는데 여
검사원이 수줍게 물었다.

“혹시, 새우젓 같은여자.....”

“아, 예. 제가 썼어요.”

“어머, 어머. 이름 보고 혹시나 했
는데...어머. 정말이네요. 제가 대학
다닐때 그 책을 아주아주 좋아했어
요. 그래서 한 권 모두 코팅해 가지
고 다녔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요.”

우리는 둘다 얼굴이 발그스레 해지
면서 감동으로 숨소리 거칠어졌다.
심전도 검사를 다시 했다면 분명 이
상이있다고 나왔을 것이다.

책이 출판되면 가끔 이런 독자를
만난다. 작가의 보람이자 기쁨이다.

(사족) ‘새우젓 같은 여자’를 출판
한 출판사는 부잡질 따님이 만들었
는데 내 책과 더불어 몇몇 책을 출판한
다음, 결혼을 하면서 문을 닫았다.

난감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게 원고
를 청탁했던 편집부장은 직장을 잃
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녹내장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I 공공의료원 칼럼

녹내장은 대표적인 안과 질환 중 하
나로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원발성 개방
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의 정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
적 변화를 보이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압이 높아서 생긴다고 아는 분
들이 많지만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
우 안압은 낮은데도 특징적 시신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을 야기
합니다.

또한 안압은 각막의 두께와 연관
이 있어 같은 안압이어도 각막의
두께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안압의 수치가 낮아도 녹내
장이 의심된다면 정밀검사가 필요
합니다.

녹내장의 증상으로 시야 결손이
생긴다고 설명 드렸는데,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
환으로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증상을 자각하기
힘들며, 증상이 생기고 검사를 한다
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통해 시신경
의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
가로 시신경 정밀검사 및 시야 검사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이 진
단되었다면 이미 진행된 시야 결손
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시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압을
하강시키는 안약을 사용하고, 안압
하강 효과 및 시야 손상이 진행되진
않는지 수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
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약을 지시에 맞게 사용하지 않
거나, 잘 사용하더라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시야 손상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꾸준히 병원에 방
문하셔야 합니다. 약물치료로 안압
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야 손상이 진
행되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더 나아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
다. 흔히 시행되는 수술로는 섬유주
절제술 또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
하며, 이 경우 치료 예후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건강
검진에 안저 검사가 포함되어 녹내
장을 미리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행된 녹내
장이라 해도 안압 하강제를 잘 사용
하고 정기적으로 경과관찰 한다면
진행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잘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김 광 현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안과장

“깨끗하게 단장된 공간에 기뻐하는 모습…봉사 활력소”

당진 현대제철소 ‘사계절봉사단’

10년 동안 저소득층 도배 도와

직장생활 틈틈이 전문 기술 익혀

[당진] 2013년에 발족해 올해 열 돌을 맞이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계절봉사단이 2019년 코로나로 봉사활동이 중단된 지 3년 만에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사계절봉사단(회장 박민수)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계장협의회 소속의 자율봉사단이다. 회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노인 복지시설인 당진전문요양원에서 10년 동안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생활지원(청소, 시설정비) 및 정서지원(어르신 말벗) 등의 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봉사단내 소모임에서 기획 봉사 활동으로,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저소득층 도배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 특별활동으로 설 및 추석 선물 전달, 어버이날 경로잔치, 크리스마스 산타잔치 등도 지원하면서 말 그대로 사계절 내내 촘촘한 봉사활동을 적



사계절봉사단원들이 도배 봉사를 하기 위해 풀을 만들고 있다. 오른쪽은 사계절봉사단원들의 단체사진.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활력충전소 사계절봉사단을 소개한다.

현대제철에서 평생을 일해 왔다는 사계절봉사단 권기식 총무는 원래 도배의 ‘도’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10여 년 전 뉴스에서 한 봉사단이 달동네를 돌며 도배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장에

라도 도배 봉사에 나서고 싶었으나 기술이 없는 데다 관련 봉사단을 찾지도 못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도배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봉사단을 만들어 2013년도 처음 도배 봉사를 당진전문요양원에서 시작했다. 어르신 방 2곳, 거실 겸 주방 1곳이 있는 16평 남짓한 공간을 도배하는 데에 무려 9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렇게 도배작업을 마치고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특히 깔끔하게 단장된 공간을 보고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권 씨가 도배 봉사에 전념하는 자극제가 됐다.

“도배가 서툴러 점심을 거르고 작업했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계절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도배지와 풀을 비롯한 각종 재료도 구매하는 등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죠”

도배 봉사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도 많다. 점점 도배시공, 전기주거설비, 용접 경력자들이 들어오면서 주거환경개선 봉사단으로 탈바꿈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신문 제공

3년 만에 찾아온 한여름 축제의 향연

태안 곳곳서 가요제와 독살체험

버스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태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이 닫혔던 한여름 축제의 향연이 3년 만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갈증을 해소시켰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한 태안군 내 해변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피서객들의 오감을 자극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연포 해수욕장과 몽산포 해수욕장에서는 ‘해변가요제’와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열려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우선,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 근흥면 연포 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는 관광객들과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해변가요제’가 눈길을 끌었다. 결선에 이어 시상식 및 연포 상공에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며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열렸다. 남면 주민자치센터의



제7회 한여름밤의 해변음악회.

풍물 및 밴드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음악회는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몽산포 해변을 뜨겁게 달궜다.

이튿날인 31일 오후 6시부터는 안흥항과 안흥진성, 안흥나래교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근흥면 신진대교 아래 야외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 ‘제7회 한여름밤의 해변음악회’가 발길을 이끌었다.

근흥면사무소와 근흥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세근)이 주관한 해변음악회는 군민과 태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만약에’의 조항조를 비롯해 수많은 화제를 낳은 미스트

롯의 ‘김소유’, ‘화려한 싱글’의 양혜승 등 유명 인기가수가 총출동해 신명나는 무대를 연출했다.

한편, 태안반도에서의 풍성한 피서 이벤트는 8월에도 계속된다.

먼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는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에서 ‘제2회 한여름 밤의 꿈’ 음악회가 진행됐다.

이어 8월의 첫 주말이 시작되는 이달 5일과 6일 안면읍 삼봉 해수욕장에서는 ‘2022 삼봉 버스커’ 공연이, 8월 6일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마술과 노래자랑, 팝페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신두리 해변음악회 &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8월 6일 이원면 구지나무골 해수욕장에서는 갯벌체험 및 독살체험과 노래자랑이, 8월 6~7일 안면읍 백사장 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 써머 페스티벌 힐링캠프’가 각각 진행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신문 제공

일상의 공간이 예술작품으로

홍성 어반드로잉 프로젝트

[홍성] 주민들이 직접 동네 곳곳을 스케치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어반드로잉 프로젝트 ‘결성다움展’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홍성군 충남도서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2022 문화도시 홍성 아카이브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홍성군민 20여명이 결성면 소재지 곳곳을 직접 그린 작품들이 전시된다.

참여 주민들은 12주 동안 전문작가의 스케치 수업을 받으며 결성면 소재지를 탐방, 거리와 주택 곳곳을 작품으로 옮겼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참여 주민 작품.

1500년 역사의 금산 인삼

윤성희의 만감(萬感)

“줄기는 셋이요 잎사귀는 다섯 / 빛을 등지고 음지를 향하는구나 / 나를 구하려거든 / 가수나무 아래서 찾을 일”

고구려 때 지어진 작자 미상의 ‘인삼찬(人蔘讚)’이라는 한시다. 중국의 여러 문헌에 소개되고 우리 옛 문헌들에도 한시의 원류로 거명되는 작품이다. 소박하기는 해도 무엇보다 인삼의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때 이미

인삼이 예찬될 만큼 그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도인 도홍경(456~536)이 저술한 의서 ‘명의별록’에도 벌써 인삼의 약성을 평가한 대목이 보인다. “인삼은 백제의 것을 중하게 여기고 다음으로는 요동(중국)의 것을 쓰는데 요동의 것은 백제의 인삼보다 못하다.”

여러 자료들로 미루어 백제의 인삼이라면 아마도 금산 인삼을 지칭하는 것일 터.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500년 이전에 인삼이 재배되고 외국



금산 인삼

과도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기록이다. 금산 인삼의 브랜드 가치가 어제 오늘 형성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이야 인삼의 재배지역이 전국으로 퍼져 있어 어느 특정 지역의 특

산물로만 한정하기 어렵게 돼 있다. 재배지역의 확산은 농업기술의 발전을 입증하는 거겠지만 또 다른 좋은 의미에서 인삼의 효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삼의 효능을 만들어내는 것은 땅에서 기운을 빨아들이는 잔뿌리 덕분이다. 인삼은 무처럼 미끈한 몸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근을 중심으로 몇 가닥의 지근과 그 아래에 수많은 잔뿌리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식물이다.

특히 잔뿌리는 수분과 영양소들을 탐색하고 끌어올리는 생명 공장의 충실한 근로자들이다. 잔뿌리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과업을 수행하고 인

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고 링에서 내려오는 권투선수처럼 잔뿌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심을 완전히 연소시키고서야 성장을 멈춘다. 인삼을 캐낸 자리에 연작이 불가능해지는 이유다.

재배지역의 확산은 인삼이 효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결과된 불가피한 조치지만, 한 국가도, 국가의 시스템도, 리더십의 행사도 인삼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하지 않을까. 금산 인삼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윤성희(문학평론가)

“모월리의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합니다”

서산 인지면 ‘쉼이 있는 정원’

[서산]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산19-7에 위치한 곳에는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충남 제2호 민간 정원인 ‘쉼이 있는 정원’이 있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던 그 즈음에도 사람들은 튤립, 철쭉 등이 화려하게 꽃 피워진 3000여 평의 공간을 걸으며 상춘객의 핑크빛 설렘을 누렸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며 치유되는 기쁨도 함께 누렸다.

여름빛이 진한 나뭇잎들 사이로 더운 공기를 불어 넣던 지난 6일, 고즈넉한 구름지 소나무 숲 사이로 1만6500㎡ 규모의 쉼이 있는 정원 모월2리 서학동(사진) 이장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서른 중반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젊음을 불태워 민간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20여 년 전부터 사재를 털어 조금씩 조성한 곳이 쉼이 있는 정원이다. 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청춘을 묻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행복과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쉼이 있는 정원에 쏟아부을 예정이니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쉼이 있는 정원에서 안식을 누리기 바란다.”

간단한 정원 소개 부탁 - 이곳 ‘쉼이 있는 정원’은 봄부터 철쭉, 연산홍, 꽃잔디, 진달래 등이 피고 가을에는 백일홍, 코스모스, 국화 등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민간정원 2호다. 연중 볼거리로는 천사의 나팔, 사막 선인장 등이 있다. 이곳



충남도내 제2호 민간정원 등록
1만6500㎡ 규모 사시사철 볼거리
입장료 없고 편의시설·공연장 갖춰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다. 요즘은 도시의 삭막함과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된다. 이런 분들이 여기를 찾아 꽃도 보고 오솔길도 걸으며 에너지 충전을 해가신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은 마치 사시사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 ‘쉼이 있는 정원’ 가장 우선은 주민들이다. 농사일을 마친 주민들과 퇴근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밤에도 휴식할 수 있는 야간 조명등을 달았다. 나아가 힐링이 필요한 모든 분이 부담 없이 찾는 공간이 또 이



서산 ‘쉼이 있는 정원’에 튤립이 한가득 피어 있다.

곳이다. 음악과 어우러지는 연주공간도 마련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원은 삶의 속도를 한 단계 늦추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시간 선물인 셈이다. 그러니 편안함을 느끼려는 분들은 하루를 기분 좋게 할애하여 쉼을 누리기 바란다. 쉼이 있는 삶이 복지라는 말도 있지 않나.

정원 유지하며 어려운 점은 - 농촌에서 살면 대부분 풀과의 전쟁을 치를 것이다. 나는 그제 일 힘들었다. 꽃나무 사이사이에 구석구석 차지하고 있는 잡초들은 비가 오면 또 왜 그렇게 빨리 온 땅을 점령하는지. 그나마도 때를 놓치면

뿌리가 굵어질 뿐만 아니라 손으로 뽑기도 어지간히 힘들었다. 그사이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힘들다. 하지만 또 나중에는 그 비로 인해 땅에 공극이 생겨 뽑아내기는 한결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은 참 좋기도 하다. 문제는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다.

앞으로의 포부는 - 많은 시민이 달려와 힐링하고 치유를 받는 곳이다. 바람이 있다면 직접적인 관련 부처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한 쉼을 오래도록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산시대 제공

서천군, 족구 메카 도약 날개짓

(주)우양 실업팀 창단식 성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기대

[서천]서천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육성·지원하는 족구실업팀이 창단됐다.

(주)우양이 지난달 28일 장항공장 족구장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양족구팀 창단식을 개최한 것.

이날 창단식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김경제 의장과 군의회 의원, 전익현·신영호 도의원, 오세영 체육회장, 홍기용 대한족구협회장, 충남 족구협회장과 서천군 족구관계자들이 함께해 창단식을 축하했다.

창단식에서 홍기용 대한족구협회장이 축하 인사와 함께 준비한 족구용품을 우양 족구팀에 전달했고 시범경기로 우양 족구팀과 조이키포츠 족구팀 간의 경기를 보며 경기 내내 참석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서천군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한 것은 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 족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천군과 ㈜우양이라는 기업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세영 체육회장은 “족구의 메카 서천에서 처음으로 족구실업팀이 창단해준 이구열 대표에게



창단식에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며 “서천군의 족구와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우양 이구열 대표는 “생활체육의 인기종목인 족구를 더욱 알리고 실업팀을 통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족구팀을 창단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우양 족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양과 서천군 또한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최근 처음으로 단발성 대회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전국 단위 대회인 ‘족구챌피언스리그’를 개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 태권도, 역도 등에 이어 당당하게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서천신문 제공

공주시, 2022 문화재 야행 개최

음악회·연극 등 공연·행사 다채

[공주]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야간 문화재 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2022 공주 문화재 야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다.

올해로 6화재를 맞는 공주 문화재 야행이 원도심인 제민천 일원에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야행은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부터 1940년대 충남도청 이전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8야(夜) 총 19개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먼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제민천 일대를 중심으로 공주기독교박물관, 공주역사영상관 등 문화재 야간 개방을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스탬프 투어, 해설사 동반 투어, 온라인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를 연결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근대 공주의 시간 속으로 안내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공연 및 시연을 비롯해 100년 전 공주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교차 전시하는 기록전시, 제민천 모던음악회, 인문학 콘서트, 관객참여형 연극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여기에 공주 특산물을 소재한 한 먹거리와 주무대 공연을 즐기는 동안 펼쳐지는 연회 ‘남만만찬’ 등도 열린다. /공주시 제공

충청인의 詩香

참나무 숲에 가면

내가
참나무 숲에 자주 가는 까닭은
무엇보다
나무 이름이 좋아서 간다.
참나무
참나무
언제나 불려도 참나무가 되는 나무
참나무
참나무
그 이름 부르다 보면
덩달아 나도 모르게
참사람
참사람
참사람이 되는 것 같다
참나무 숲에 가서
참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갈 텐데



권 상 기 시인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장
·천안시인회장 역임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

〈더 해빙〉은 전직 기자 출신 저자 홍주연이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이자 부자들의 구루(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 불리우는 이서윤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이서윤은 수만 명의 데이터 사례 분석

을 통해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 비밀은 바로 해빙(Having)이다. 해빙은 단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 한잔을 사더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해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음보다는 돈이 없음에 집중한다면 부자들은 무의식에 ‘있음’

을 입력하며 무의식이 갖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부와 행운을 끌어온다는 것이 해빙의 원리이다.

이 책은 독자가 쉽게 해빙을 실천하도록 해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와 중요성 그리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준다.

있고 있던 감사의 마음, 가진 것에 대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다.

/충남도서관 최현주 사서



사서들의 서재



〈더 해빙/이서윤, 홍주연 공저/2020〉

“끈기와 독심으로 도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조길연 제12대 전반기 의장

현재 지방 분권 중요한 갈림길

지방소멸·불균형 위기 극복해야

도민 건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실천하고 책임지는 의정 구현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취임 한달이 지났다. “끈기와 노력과 독심의 정치인으로 통한다”는 조 의장은 “4선의 경험을 실전에 활용해 책임 정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또 “기꺼이 도민을 위해 성난 파도와 싸우는 선장이 되겠다. 도민의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행동과 소통을 강조했다. 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를 이끌어 갈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소감은

“제12대 의회 출범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 드린다. 또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후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조길연 하면 끈기와 노력, 독심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도력을 갖춘 노련한 충남호의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선도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지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의정 목표를 세웠다. 의정 방향은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이뤘길 계획이다. 그동안 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민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 제도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의회가 먼저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또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해가겠다. 광역의회를 선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충남 현안은

“충남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발전 정체를 겪고 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 등 지역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충남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발전은 정체되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충남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이 전체 42%를 넘는 97곳에 이른다. 충남도의 경우, 2015년 전체 행정리 4317곳 중 절반가량인 2211곳이 소멸고위험 지역이었으나 2020년 전체 4392곳의 행정리 가운데 71.1%인 3123곳이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통계다. 현재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서 힘들고, 지방은 그 반대여서 힘든 상황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단순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남아있으려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소멸을 막으려면 젊은이들이 살만한 곳이 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문화·여가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청년 농부가 되어 부농이 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의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충남발전이 목표다. 현재 충남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시 발전은 정체되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충남만이



조길연 의장은

부여고등학교 졸업, 인천대학교 졸업, (전)충청남도 체육회 이사, (전)충청학교육원 교수, (전)부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부여군 개발위원장,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부의장),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의장)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 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이 전체 42%를 넘는 97곳에 이른다. 충남도의 경우, 2015년 전체 행정리 4317곳 중 절반가량인 2211곳이 소멸고위험 지역이었으나 2020년 전체 4392곳의 행정리 가운데 71.1%인 3123곳이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통계다. 현재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서 힘들고, 지방은 그 반대여서 힘든 상황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단순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남아있으려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소멸을 막으려면 젊은이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문화·여가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은 참으로 당연한 과제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청년 농부가 되어 부농이 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의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으로서 화합과 협치 방안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도의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뭉쳐 뭉쳐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로 뛴 것이다. 도의원은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동행하는 동행자이다. 지역과 당적을 초월해 도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도의 도약과 당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소모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보내준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지역구(부여2)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지역 불균형을 비롯한 양극화 문제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됐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사이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남도를 비롯 부여 지역은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시발전 정체를 겪고 있다. 재정자립도 또한 날이 갈수록 열악해져 이제 관광만으로 주민이 생존해 나갈 수도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도시라는 이유로 공장을 들여올 수도 없어 더 난감하다. 이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찾아가야 한다. 관광과 농업, 첨단산업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시설 농업에 대해서도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강화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제20회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열렸다. 과거 황무지에 가까웠던 궁남지를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연꽃 단지로 조성, 현재 국내 최고의 연꽃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연꽃축제를 더욱 다양한 아이템과 불거리, 먹거리 등으로 세계적 명품 축제로 도약하고, 세계 브랜드화 시켜 나가 부여가 한층 더 성장해 가길 바란다.”

충남도민과 도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한마디

“정당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하나로 뭉쳐 뭉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더 발전된 충남도를 만들어 나가자. 또 소모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보내준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가는 의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한다. 부족한 점은 엄히 꾸짖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주고, 잘한 점은 등 두드려 칭찬해 주길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도민의 관심과 격려, 지지가 함께 할 때 의회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내준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 나갈 것이며, 불가피한 갈등과 반목에는 뒷짐 지지 않고 굵은일엔 의회가 먼저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 연구

도의회, 연구모임 결성·발족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해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5일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발족식을 연 뒤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전용 구장 설치 효과 ▲팬덤 형성을 통한 경제효과 ▲지역 광고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연구모임 발족식에서 참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프로야구단 운영은 폭넓은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또한 도민에게 사회적 교류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단체·대학·지자체가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스포츠산업 불모지인 충남에 프로야구단 창단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 5분 발언 인원 제한 풀었다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 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 발언이 가

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 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뒤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 위기 극복할 터”



①기획경제위원회 - 김명숙 위원장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강화

주민중심 지방자치제도 실현도 강조

제12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선출 소감은
=“먼저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 도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충남도정이 도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사용하겠다.

기경위는 충남도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경제 관련 분야의 중요성 높은 부서 업무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로 위원장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보니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에게 이로운 충남의 밝은 미래 정책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상 역할에 충실하여 220만 도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

앞으로 2년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방향은

=“기경위는 충남도정의 큰 틀에서 미래비전,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을 위해 세심히 살펴볼 것이다. 또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충남도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 균형발전을 이뤘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은 산업 발달 지역, 첨단산업이나 제조업 발달 지역, 농업발전 지역 등 시군 간의 발전 격차가 크다. 지역마다 산업별로 불균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기경위 의원들과 협심해 제12대 전반기를 잘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제12대 의원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행정이 도민 편으로 옮겨오고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내륙권에 대한 실질적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다. 자치분권 1.0시대를 넘어 2.0시대라고 하는데 행정은 아직도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 주민들의 입장이 잘 반영된 예산편성을 통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 충남의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해양산업을 추구하는 지

역 등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군별로 편차가 크다. 지난 2021년 말 발표된 충남 제4차 종합개발계획(2021~2024)과 도정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많은 남부 내륙 지역(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청양 등) 개발정책을 보면 다른 권역보다 발전계획이 부족하다.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저발전 지역에 대해 주민 중심의 새로운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은

=“농촌지역이 지역구라 인구감소 등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먹거리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연자원의 소중함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금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제도를 더 확장하고 현실에 맞는 농업농촌정책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세종시에 소재해 있는 충남 산림자연연구소를 충남도로 이전해야 한다. 도청 이전 10년이 넘었지만, 도민들의 산림문화복지 향유와 임업인들의 활용도가 낮아 충남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부족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양군에 건립 중인 충남도 공공기관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충남탄소중립연수원, 충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청양군은 자연환경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를 활용한 농산어촌유학센터나 먹거리생애전환교육센터 등 도시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농어촌 교육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고른 발전이 시급하다. 충남도는 1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말, 대전에서 홍성·예산으로 이전했다.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으나, 성적은 인구 3만 명에 그쳐 도청소재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근 시군의 발전도 더뎠고 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 내포첨단산업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아울러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도청소재지가 커져야 사람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지역의 문화와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도 수부도시인 천안·아산시만도 못한 소재지는 충남도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다. 전국 도청소재지 중 충남이 인구와 경제면에서 가장 작다. 충남도는 도정방향의 핵심과 조직 재편을 통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처음 출발한 곳을 잊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말과 ‘공정과 균형’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언제나 초심으로 도민을 대변하는데 충실하겠다. 표를 의식해 할 말을 참기보다는 할 말을 하고 도민을 위한 일에 도의원의 권한을 쓰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는 도의회나 시군의회의 역할과 시군 및 도정에 관심을 두고 선출한 정치인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이 회의 시간에 잘 참석하는지, 주민을 위한 예산결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꼼꼼히 정책제안과 조례제정 등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 많은 격려도 부탁드린다.”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 만들기 주력”

②행정문화위원회 - 김옥수 위원장

실질적 생활 정책 수립 중점

사각지대 놓인 도민 안전

보편적 복리 증진 이바지

제12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선출 소감은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맡겨준 동료 의원님과 많은 격려와 지지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1대에서 행문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 또 행문위 소속 의원은 한분 한분 역량이 모두 뛰어나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가겠다.”

앞으로 2년간 행정문화위원회 활동 방향은

=“행문위는 도민의 품요로운 생활을 위한 행정과 문화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 중점 과제로 첫 번째,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그동안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청년들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낮다. 청년 간 소득격차는 심화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이나 청년고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추진을 발굴해가겠다.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

교 논산 이전’에 집중하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방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논산으로의 육사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의 시설이 가깝게 있어 육사 이전 후보지로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육사 유치를 위한 논리와 당위성 개발을 통해 충남이 제대로 된 국방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내겠다.”

제12대 의원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충남의 고유한 문화재 보존・지원정책을 만들고 싶다. 충남도는 백제문화 등 유・무형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 활용 능력은 부족하다. 충남도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살리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둘째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수도권 밀집화로 지방소멸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향도 함께 살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충남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부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서산은 다양한 성장동력을 가진 지역인만큼 현안 사업도 다양하다. 그중 진정한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세우기 위해 ‘충남 도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산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사적 475호로 지정된 부장리 고분군 등 귀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또 국보 84호인 마애여래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 등 풍부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할 장소가 없어 모두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충남 도립박물관 서산 유치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이외에도 서산 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 정원공원 조성, 서산-태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병원 전편 위탁 추진 등 중앙과 충남도의 가교역할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산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사적 475호로 지정된 부장리 고분군 등 귀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또 국보 84호인 마애여래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 등 풍부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할 장소가 없어 모두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충남 도립박물관 서산 유치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이외에도 서산 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 정원공원 조성, 서산-태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병원 전편 위탁 추진 등 중앙과 충남도의 가교역할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오랜 기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된 도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잘 알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재원이 사용되는지 지켜보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안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지난 4년간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마음으로’를 마음에 새기며 지방자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왔다.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도민과도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만큼 자만하지 않고 충남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정 살림이 도민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도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의 객관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도민들이 정작 도의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구가 아니면 더욱 소외된다. 도의원은 단순히 지역구만은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 전체를 아우르며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도정에 혹은 의정에 관심을 두고 편하게 찾아와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다.”

K-Military, 평화의 이모네



주최



충청남도



계룡시

주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